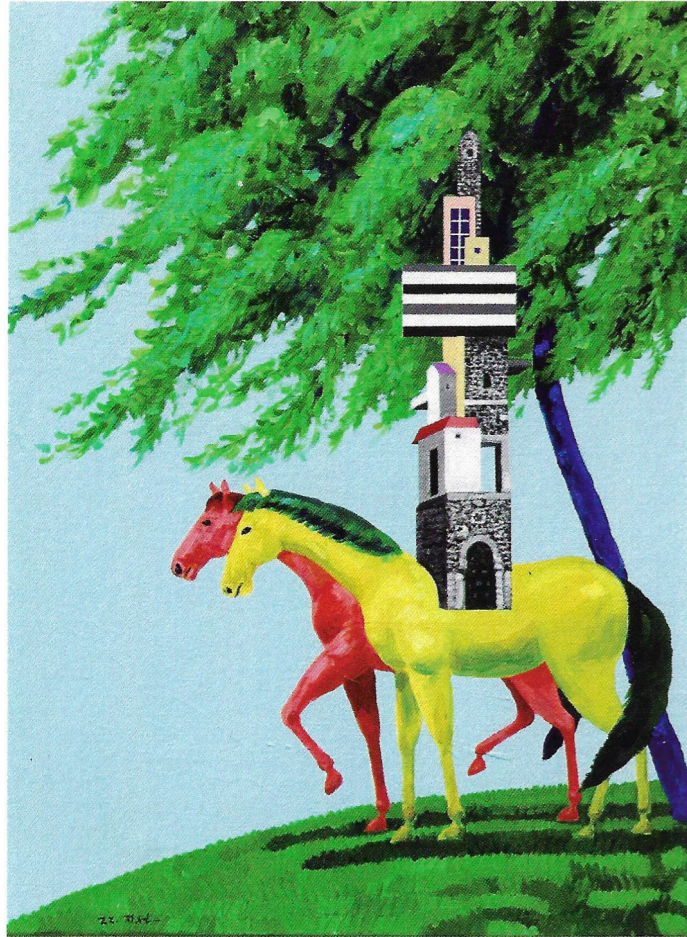


류지선 Ryu Ji sun



버드나무와 말, 45.5x33.5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정선의 집. 91x16.5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버드나무와 말, 45.5x33.5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류지선의 이번 작업들은 그것들의 결합을 통해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삶의 상보적 면모들을 다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집은 부르디외 말처럼 아비투스(habitus)적 취향이 반영되는 대상이다.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모한다. 류지선의 작업에서 집을 태우고 있는 말은 집이 갖는 변화성의 반영체이다. 집과 달리 기본적으로 변화의 의미체인 말은 고정 의미 또한 포함한다.

환경이 바뀌어도 개개인의 고유한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디아스포라(diaspora)적 모습을 말이 갖고 있으므로 집은 움직이지 않는 삶의 양태로서의 말의 불변적 면모의 전이체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변화와 불변의 이중나선 의미체로서의 집과 말의 결합체는 그것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읽혀진다. 집과 말의 복합적 이중성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류지선은 다양한 표현방식을 도입하여 주변공간을 엮어내고 있다.

<이영훈 평론 글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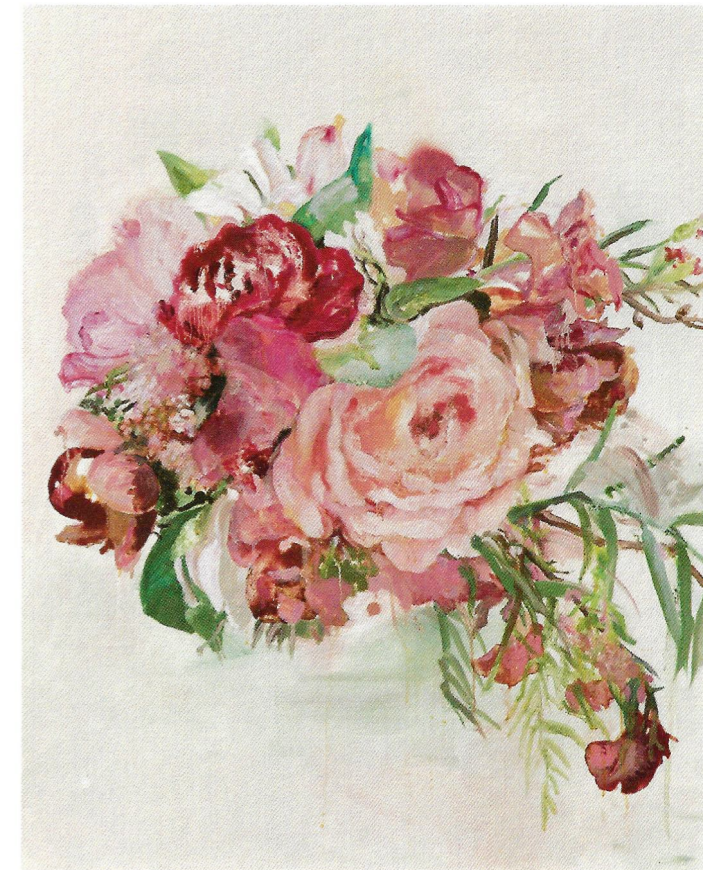
정상곤 Chung Sang gon



Still Life 정물, 160x160cm, oil on canvas, 2022



Still Life 정물, 100x200cm, oil on canvas, 2022



Still Life 정물, 100x80cm, oil on canvas, 2022

정상곤 Chung Sang gon

1989년-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판화전공)  
1983년-198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졸업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베를린, 탈린, 동경, 후쿠오카, 노보시비르스크 등 국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총 42회의 개인전을 열었다.(통인옥션갤러리, 사이아트갤러리, 금산갤러리, 샘터갤러리, 표갤러리, 칼리파갤러리 등)

주요 단체전 60여회  
2022 꽃꽃하게 (금산갤러리)  
2022 화랑미술제 (빛갤러리)  
2021 대구아트페어 (청담갤러리)  
2021 서울아트쇼 플래시아트 초대작가 (코엑스)  
2020 자연: 동해와 독도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2020 한국현대동경화의 국면 / 이종송 정상곤 전 (최북미술관)  
2020 전망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9 Spatial Transformations (Studio Anise, 뉴욕)  
2019 자연을 말하다 (리나갤러리, 서울)  
2018 독도미학 (세종갤러리)

주요 수상  
2018 노보시비르스크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러시아) Grand Prix  
2007 울덴부르크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독일) 울덴부르크시장상  
1999 류블라나 국제판화 비엔날레 (슬로베니아) Grand Prix  
1998 탈린 국제판화 트리엔날레-“Touch” (에스토니아) Grand Prix  
1997 크라코프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폴란드) 심사위원상  
1990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1990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 (서울) Grand Prix

주요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국산업은행, 박수근미술관 분당서울대학병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진천생거문화미술관, British Museum (영국), The Art Museum of Estonia (에스토니아), Municipal Museum of Arts (헝가리)

나의 그림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것'과 '다시보기'라는 두개의 큰 축은 대학시절 이후 지금까지 나의 작업의 주된 키워드이다. 사실 보잘것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것도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 내가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의 가치를 보게 된다. 그와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늘아래 그 어떤 것이 가치를 뽐내고 무척 있어 보여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무하고 허망할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세히 보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거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싶진 않다. 내가 관심하는 바는 그것들을 의심하고 다시 보면서, 그 어떤 것도 무심히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보기' 는 진부한 일상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것에 대한 위대함을 느끼는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상곤-

류지선 Ryu Ji sun

2012 서울대 미술대학 박사 졸업

개인전

2022 걷다(아트스페이스 쉼리아 초대, 서울)  
2021 움직이는 집-여행(강릉시티갤러리초대, 강릉)  
움직이는 집(코튼필드갤러리 초대, 구미)  
2020 피그말리온의 정원(갤러리 내일 초대, 서울)  
풍경의 집(더 네이처 갤러리 초대, 평택)  
2019 길 위에서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서울)  
외 홍콩, 울산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

2022 평창동 이야기전(아트스페이스 쉼리아, 서울)  
메타버스전(갤러리 내일, 서울)  
목포아트페어(목포문화회관, 목포)  
BIAF(벡스코, 부산)  
2021 회화정신전(동덕갤러리, 서울)  
BAMA(벡스코, 부산)  
BIAF(벡스코, 부산)  
제 6회 히즈아트페어(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서울)  
제 2회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회원전(서울교대 샘미술관, 서울)  
자연의 자리, 미술의 자리(도화현미술관, 고흥)  
히즈아트페어 우수 작가전(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서울)  
사랑과 평화전(마루아트센터 특별관, 서울) 외 다수의 단체전 참여

작품소장

미술은행, 외교부, 한국유엔대표부, 황산건설, 야놀자(주), 서울동부지방법원